

1:1 대화로 '참나 찾기'

현/장 김병채 교수의 수행 공동체



삿상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참가자들.



'폰자하우스' 입구. 참나찾기 화두가 불꽃처럼 되살아난다.

경남 창원원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아쉬람'. 절도 교회도 아닌 이곳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40~50명의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국적 향취가 물씬 풍기는 건물형태나 인도식으로 제공되는 식사가 자못 눈길을 끌긴 하지만, 사람들 발걸음의 이유는 '삿상'에 있다. '진리와의 교제'를 뜻하는 삿상은 창원대 김병채 교수가 인도의 명사가 라마나 마하리쉬·슈리푸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98년 국내에 첫 인도식 수행공동체 아쉬람을 설립한 이후 6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는 자리다.

4월 3일 토요일, 오후 8시가 가까워오자 삿상 장소인 아쉬람이 한결부터 채워지기 시작했다. 흠을 빼곡히 메운 이들은

저마다 간직한 사연이 있는 듯 꼭대문 입술에 지긋이 내려앉은 눈으로 진리와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윽고 명상음악이 깔아주고 김병채 교수가 입실, 라마나 마하리쉬 사진이 담긴 대형액자 앞에 앉아 말문을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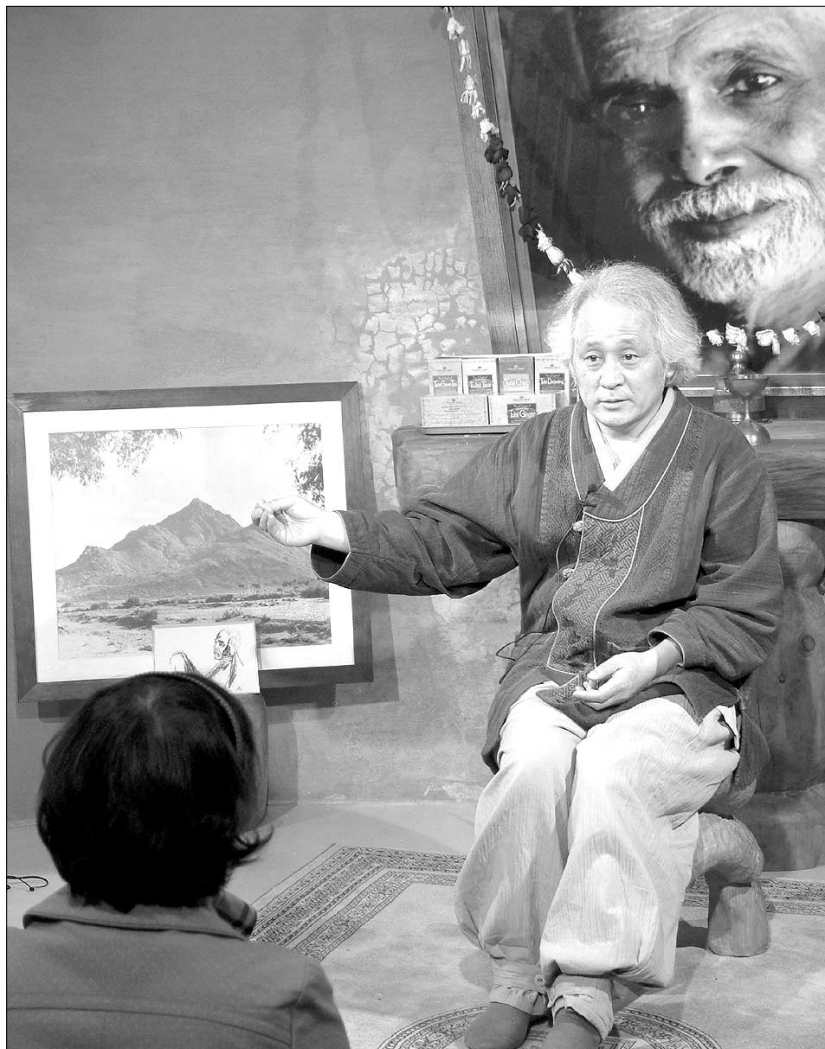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오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우리는 '출발지'를 잊고 있습니다. 어디쯤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공기저항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삿상은 스승과, 경전과 대화하며 '시작'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 제자들이 모든 의문을 부처님과 대화 속에서 풀어갔듯, 김 교수가 이끄는 삿상은 얼굴을 마주하며 벌이는 일대일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이끌어내는 시간이었다. 그 해결과정의 핵심은 바로 '참나찾기'였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지만 과거에 져있는 습(習)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방이 있습니까?"

인 명사가 라마나 마하리쉬의 공부법 98년 국내 첫 인도식 수행공동체 설립

"있습니다."
"가방을 자리에서 떨어진 벽 쪽에 따로 보관하고 있군요."
"예."
"습은 가방입니다."
"네?"
"가방이 당신입니까?"



슈리크리슈나다스 아쉬람 내 아쉬람아를 위한 삿상 시간. 액자속의 마하리쉬, 김병채 교수, 참가자들이 참나찾기에서 하나가 된다.

몇 마디 대화에 '습'을 놓아버린 아나의 눈에서 순간 눈물이 글썽이더니 입에서는 돌연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가방 없이는 나가지도 않았던 나, 가방이 나인 줄 알았던 내가 가방으로부터 'free'를 선언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존재의 기쁨이 몰려온다. 통상적으로 믿어오던 '나'는 'ego'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의식과 생각을 결어낸 '참나'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빛이요 진리라는 마하리쉬의 가르침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다. 그 참나의 희열이 몇 마디 소리로 살아났다. "나는 평화 속에 있다." (055)299-6379

창원=강신재 기자 thswh@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패트리샤 펠런 (上)

美 채플힐 선원서 일상禪 전파

"당신이 좌선할 때는 오로지 좌선만 하십시오. 깨달음이나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침을 먹을 때는 앞에 놓인 음식에만 집중하고 먹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달으세요. 당신이 쉬고 있을 때는 오로지 쉬기만 하세요. 그대가 좌선할 때는 좌선만 하고 그대가 일할 때는 일만 하십시오." (http://www.intrex.net/chzg)

미국 노스 캐롤라이너에 위치한 채플힐선원(Chapel Hill Zen Center)의 패트리샤 펠런(Patricia Phean) 선원장은 '좌선할 때는 앉기만 하고 일할 때는 일만 하라'는 전통적인 일상선(日常禪)을 표방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백장 선사(白丈仙師)의 가르침을 현대에 드날리고 있는 펠런 법사의 가르침은 생활인, 특히 도시인들의 모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수행



"좌선할 땐 앉기만 하고 일할 때는 일만 하라"

노사와 함께 정진하기도 했다. 95년 마침내 그녀는 버클리선원장인 소준 와이즈먼으로부터 전법(傳法)을 받았다. 자신만의 내적 여행과 더불어 오랜 불교 공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그녀의 설립은 전적으로 스즈키 선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

펠런 법사는 이러한 일상선과 함께 '우리는 이미 부처이기에 어떤 여건에서도 부처행을 하고 있다'는 '본래부처'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는 단지 수행을 통해 참된 본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강조한다. "불교는 우리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이미 부처라고 가르칩니다. '깨달다(Realize)'라는 말은 '실현하다(to make real)'란 의미입니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발생한 어떤 일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 또는 지각에 관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골수, 뼈, 머리카락까지 관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신념이나 옳다고 여기는 견해를 내려놓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좌선을 통한 결과가 우리의 삶과 뼈로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펠런이 좌선을 시작한 것은 1969년 오리곤에서였다. 71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그녀는 타사자라선원에서 몇 년간 머물며 정진했다. 91년 10월 채플힐선원의 선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선원에서 20여년간 수행하며 지도법사와 기숙사 사감을 맡았다. 펠런은 77년 스즈키(Shunryu Suzuki) 선사의 후계자인 리처드 베이커 선사(샌프란시스코선원장 역임)로부터 계를 받았다. 그후 그녀는 스즈키 선사의 또 다른 제자인 소준 와이즈먼과 펠 앤더슨과 함께 수행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금강사원의 로버트 아이큰

노사와 함께 정진하기도 했다. 95년 마침내 그녀는 버클리선원장인 소준 와이즈먼으로부터 전법(傳法)을 받았다. 자신만의 내적 여행과 더불어 오랜 불교 공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그녀의 설립은 전적으로 스즈키 선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 조동종의 스님인 스즈키 선사는 1959년 세수 55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퇴폐문화가 범람하던 곳에 좌선을 행하는 정법선불교를 전했다. 13세기 도겐 스님의 직계후손이었던 그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원을 설립하였고 60~70년대 미국에 불교를 전한 선구적인 인물에 속한다. 조용하고 소박한 성품에 작은 체구를 지닌 스즈키 선사는 LSD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반문화의 중심 도시에 도심 선원을 차리고는 참된 정신의 변화와 마음의 광대함을 체험하고 싶다면 마약 대신 좌선을 해보라고 미국인들에게 권유했다. (계속)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주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드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더욱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명동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wiz@hanmail.net

인터뷰 김병채 교수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배울것 없는 참나 그 자체

고 오는 이들에게 삿상을 통해 '화두'를 넘어서 '회두'라는 '자'에 대한 자각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참나들이 과거에 속아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곳, 질문이 일어나기 전의 그 장소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지요."

그 과정의 끝은 '빛'인 그대로 자신을 그대로 자각할 뿐'이라는 김 교수. "지금-여기의 온전한 신(크리슈나)에게 헌신하는 자'라는 그의 인도명(크리슈나다스)이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강신재 기자

인등 연등 전구의 혁신

귀의삼보하옵고 불자기업 황금 LED조명에서는 기존의 인등전구와 연등전구의 단점(짧은수명, 고유지비, 화재위험, 낮은견고성)을 보완하여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교체로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반영구적인 인등 연등용 LED전구로 바꾸어보십시오.

인등용 LED전구

◆소비전력: 0.07w

◆가 격: 700원

◆특 징

- 기존 설비에 전구 교체 사용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 됩니다.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 발광 효율이 높고 소비전력이 낮아 유지 관리비가 감소 합니다.
- 반도체로 되어 있어 가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전구 일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연등용 LED전구

◆소비전력: (대) 1.4w (중) 0.8w (소) 0.5w

◆가 격: (대) 5,000원 (중) 3,000원 (소) 2,500원

◆특 징

- 일반 소켓 220용에 다용도로 사용될수있습니다.
- 별도 전선 교체없이 전구 교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구 소켓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정된 전원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다방향으로 빛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처
황금 LED 조명 - 기보전자산업 서울시 중구 산림동 205 청계상가 가열 117호
TEL: (02)2266-9098, 7550 FAX: (02)2266-7557 www.kibosa.com E-mail: kibosa@kornet.net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발전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 이 3분내에 완성.
- ★ **아외장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 분위가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 팔각등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교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한 다원형 유물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하여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없이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국민핀엔텍
■ 농협 415051-51-000057 예금주: (주)국민핀엔텍